

아동이 인지한 방임 및 학대 수준과 지역사회 특성의 관계*

정 선 영**

요약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아동의 외체계에 해당하는 지역사회가 아동방임(neglect) 및 학대(abuse)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패널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의 5차년도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은 방임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 수준은 지역의 특성과 관련이 있었는데, 거주하는 지역의 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방임 수준을 높이 지각하였으며 이혼인구 비율이 높거나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할 때 지각하는 방임 수준이 낮았다. 셋째,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 수준은 아동 개인, 가구 요인, 지역사회 요인을 통해 설명되었으나, 학대 수준은 아동 개인 및 가구 요인을 통해서만 설명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방임 예방을 위한 공동체 구축과 같은 지역사회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방임, 학대, 지역사회, 아동학대 신고율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1022904)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으로,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급증하여 2015년 현재 1만 2천여 건을 기록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별 보호건수를 살펴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중북학대를 독립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정서학대(40.7%), 신체학대(37.7%), 방임(18.0%)의 순으로 발생율이 높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을 통해 방임 및 학대의 원인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33.9%),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19.0%), 부부 및 가족 갈등(11.0%) 등이 아동 방임 및 학대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실증 연구들은 아동의 장애여부나 문제행동, 부모의 교육수준, 스트레스 수준, 아동기의 피학대경험과 같은 아동 및 부모 개인 요인(박명숙, 2002; 이재연·한지숙, 2003; Youssef et al., 1998; Sidebotham & Heron, 2006), 가구소득 수준과 가족구조와 같은 가구 요인이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엄미선·전동일, 2006; Berger, 2005; Sedlak et al., 2010).

본 연구는 아동 및 부모 개인이나 가구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관점을 확장하여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아동의 외체계에 해당하는 지역사회가 아동 방임 및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980년대 이후 아동 방임 및 학대의 원인을 분석한 서구의 연구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있지만(Coulton et al., 2007) 국내 연구는 현재까지 제한적이다. 지역사회의 특징을 지역사회 단위에서 측정된 국내 연구로 이봉주와 김세원(2005)은 일부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율과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예: 이혼율, 수급율)의 관계를 밝혔으며, 정선영(2016)은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율과 지역사회의 구조적, 관계적, 제도적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아동 개인 차원에서 측정된 김광혁과 김정석(2012)의 연구는 아동이 평가한 방임 및 학대 수준과 아동이 지각한 이웃 간 신뢰와 비공식적 감독 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앞서 언급된 국내 연구는 아동방임 및 학대 수준을 지역사회 단위와 개인 단위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 이는 아동방임 및 학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다양한 수준의 체계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서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미치는 다양한 체계의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다층모형이 적용되고 있으나(Maguire-Jack, 2014)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진 바 없

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동의 방임 및 학대 수준에 미치는 아동 개인 및 가구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각 요인이 아동방임 및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황에서 개별 요인의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특성뿐만 아니라 아동방임 및 학대 수준 역시 지역사회 수준과 개인 수준으로 나누어 측정되는데, 지역사회 수준의 측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한 아동학대 신고율을 통해 이루어지며(이봉주·김세원, 2005; 정선영, 2016) 개인 단위에서의 측정은 부모나 아동을 대상으로 방임 및 학대 수준을 설문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김광혁·김정석, 2012).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측정치와 개인 단위에서의 측정치는 간극이 존재하는데, 이는 아동이 경험하는 모든 수준의 방임 혹은 학대에 해당하는 양육행동이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거나(최은영, 2016) 신고과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조경미·김은주, 2016).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특성이 아동의 방임 및 학대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역사회 단위 측정치와 개인 단위 측정치의 간극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실제로 방임이나 학대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구조적, 관계적, 제도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정선영, 2016), 구조적 특성은 지역사회에의 물질적 자원 및 안정성과 관련된 특성으로 지역사회 빈곤율, 실업율, 여성가구주 비율, 유색인종 비율, 이민자 비율, 주거이동성 등이 해당된다(Molnar et al., 2003; Ben-Arieh, 2010). 관계적 특성은 아동과 가구가 지역사회에서 경험하고 인지하는 관계의 질적 및 양적 특성으로(Molnar et al., 2016)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이나 사회적 지지로 측정되며(Maguire-Jack & Wang, 2016), 제도적 특성은 개인의 발달을 촉진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예: 공원, 복지시설)과 그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한다(Jencks & Mayer, 1990). 지역사회의 구조적, 관계적, 제도적 특성이 아동학대 신고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정선영(2016)의 연구는 수급자 비율이나 이혼율이 높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중 해당 시군구 아동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 때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았으며, 아플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의 비율이 높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할하는 지역의 전체 아동수가 많은 지역에 거주할 때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아동 방임 및 학대에 미치는 다양한 체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아동이 인지한 방임 및 학대 수준과 아동학대 신고율의 관계, 아동이 인지한 방임 및 학대 수준과 지역사회의 구조적(예: 기초수급자의 비율), 관계적(예: 아플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이웃의 유무) 제도적(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관할지역의 아동수) 특성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 1)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과 학대 수준은 어떠한가?
- 2)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 및 학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관계적, 제도적 특성은 무엇인가?
- 3) 아동 개인 및 가구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 및 학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관계적, 제도적 특성은 무엇인가?

3. 선행연구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구 요인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되며, 아동학대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이 포함된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이며,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이며,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교육적 방임(예: 특별한 사유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의료적 방임(예: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유기(예: 아동을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등이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n.d.).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2014년 증가하여, 2015년 현재 1만 2천여건을 기록하고 있다.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였을 때 중복학대(45.6%), 정서학대(17.5%), 신체학대(16.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복학대를 미분류 하였을 때 정서학대(40.7%), 신체학대

(37.7%), 방임(18.0%)의 순으로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아동이나 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가구의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동과 부모의 개인적 특성으로 아동의 언어발달이나 장애, 문제행동 그리고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 아동기의 피학대경험, 알콜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성격이나 기질 등과 같은 특성이 밝혀진 바 있다(박명숙, 2002; 이재연·한지숙, 2003).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도 영향을 미치는데 대학교육을 받은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체벌사용 확률(Youssef et al., 1998)이나 학대 가능성(Sidebotham & Heron, 2006)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특성으로 가구소득 수준과 가족구조 등이 연구되었는데, 빈곤선 이하의 소득수준인 가구는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 비해 아동학대의 위험이 높으며(Berger, 2005) 부모가 실업상태일 경우 신체적 학대 위험이 3배 높아지며 방임 위험은 7배 높아진다고 밝혀진 바 있다(Sedlak et al., 2010). 한부모 여성 가구일 때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되는데(Berger, 2005), 한부모 가구가 경험하는 양육부담이 한부모 가구가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학대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설명된다(엄미선, 전동일, 200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도 아동학대 사례의 학대원인 분석은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가구의 특성이 실제 아동학대 현장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보여준다. 학대행위자는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양육지식 및 방법부족(33.9%), 사회적 및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19.0%), 부부 및 가족 갈등(11.0%)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별로 발생원인에 차이가 발견되는데, 신체학대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다른 원인보다 많았으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은 방임 유형에서 가장 많았고 부부 및 가족 갈등은 정서학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요인

지역사회는 거주민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데, 서구에서 진행된 일련의 연구들은 지역사회가 부모로서의 양육능력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oulton et al., 2007; Diez-Roux & Mair, 2010; Freisthler et al., 2006). 지역사회의 영향력은 Shaw & McKay(1942)가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을 제안한 이후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회해체이론은 빈곤, 실업, 범죄, 주거이동성과 같은 사회경제적 불이익의 요인들이 거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한다. 지역사회의 특성이 아동학대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해체이론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structural characteristics)을 다루고 있다. 구조적 특성은 지역사회의 물질적 자원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실업율, 수급자 비율, 한부모 가구의 비율, 소수 민족의 비율과 같은 물질적 자원은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발생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Molnar et al., 2003; Garbarino et al., 2005; Coulton et al., 2007). 전출인구의 비율, 자가 비율, 10년 미만 거주한 가구 비율, 1년 이내에 이사한 비율 등과 같은 안정성 요인도 물질적 자원과 함께 아동돌봄에 대한 부담 증가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학대 발생에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romm, 2004; Garbarino et al., 2005; Maguire-Jack, 2014). 국내 연구에서도 이혼율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지역사회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봉주·김세원, 2005; 정선영, 2016).

지역별로 차이가 큰 아동학대 발생율을 설명하기 위하여 Coulton et al.(2007)은 사회해체이론에서 제기한 구조적 특성 이외에도 다른 특성을 제시하였는데, 근린지역 과정(neighborhood process; 집합적 효능감, 사회조직, 지역사회 자원과 결핍)과 처리적 과정(transactional process;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 사회적지지)이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린지역 과정이나 처리적 과정이 지역사회 주민간의 관계 및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감정이나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적 특성으로 명명하고자 하는데(정선영, 2016), 지역사회의 관계적 특성에는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과 사회적 지지가 포함된다.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에 대한 집단의 공유된 신념인 집합적 효능감 수준은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통제나 사회적 응집력을 통해 측정되는데(Sampson, 2003) 신체적인 아동학대를 감소시키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uterman, et al., 2009; Freisthler & Maguire-Jack, 2015).

사회적 지지는 물질적 지원(예: 재정적 지원, 아동돌봄 지원)이나 비물질적 지원(예: 감정적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Thompson, 1995), 사회적 지지는 부모와 아동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acia & Musitu, 2003; Hawthorne, 2008). 사회적 유대가 강할 경우에는 부모로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반면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부모는 아동을 학대하기 쉬우며(Belsky, 1993; Gracia & Musitu, 2003) 특히 방임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eagull, 1987). 국내 연구에서도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 발생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정선영, 2016).

본 연구에서는 기관자원 모형(institutional resource model)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의 제도적 특성도 고려하였는데, 지역사회의 기관들은 거주자들이 공통된 가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거주자 개인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Sampson, 2001). 지역사회 수준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분포(예: 약물중독, 입양, 정신건강, 가정폭력, 자립생활 지원, 미혼모, 장애 부모 지원)와 아동학대 발생율을 비교한 연구(Freisthler, 2013)는 기관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 발생율이 낮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위스컨신주를 대상으로 한 Maguire-Jack(2014)의 연구는 아동학대 예방 서비스(예: 가정방문, 약물중독 치료, 부모교육 등)에 투자를 많이 한 카운티에서는 아동학대 발생율이 낮았으며, 이러한 지역사회 자원의 영향력은 개인 및 가구 요인이 통제된 이후에도 유의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선영(2016)은 아동학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역사회 기관으로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의 아동인구규모가 클수록 아동학대 발생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지역주민수 대비 사회복지사의 수가 많거나 지역아동수 대비 아동보호실무자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많다는 Ben-Arieh(201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부 시군구에 아동인구의 규모와 상관없이 소수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지역사회 특성과 아동 방임 및 학대 발생의 측정

지역사회의 특성이 아동 방임 및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서구의 연구들은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의 아동학대 실제 신고 접수 건수를 지역사회별로 살펴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부모를 대상으로 방임 및 학대와 관련된 양육행동에 대해 설문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지각하고 있는 방임 및 학대 수준에 대해 설문하여 그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지역사회 특성 및 아동 방임 및 학대 발생을 지역사회 단위, 개인 단위, 그리고 다층모형을 통해 분석한 기존 연구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서구에서 진행된 지역사회 단위의 연구는 지역사회 특성과 아동학대 발생수준을 모두 지역사회 단위에서 수집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개인 단위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에 투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Breyer & MacPhee, 2015), 이는 개인 및 가구 수준의 자료를 투입할 경우 지역사회 요인의 설명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Coulton et al., 2007). 예를 들어, Pinderhughes et al.(2007)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빈곤수준과 공공 서비스의 부족과 같은 지역사회 요인이 체벌을 포함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동행동의 특성이 차지하는 설명력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Molnar와 동료들(2003)의 연구에서도 지역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격성을 설명했지만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투입되고 나서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사회 단위로 진행된 국내 연구는 이봉주와 김세원(2005), 정선영(2016)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지역

사회 특성과 아동학대 발생수준을 모두 지역사회 단위에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개인이 분석단위인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측정하고 부모나 아동을 대상으로 방임 및 학대와 관련된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수준을 설문하고 있다. 서구에서 진행된 연구는 Kim & Maguire-Jack(2015)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어머니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수록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수준이 낮으며, 지역사회의 사회통제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신체적 학대 수준도 낮다고 하였다. 개인 단위로 분석한 김광혁과 김정석(2012)의 연구는 아동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높게 인식할수록 아동이 인식하는 방임 및 학대 수준이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역사회 요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층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서구에서도 많지는 않은데, 부모를 대상으로 방임 및 학대와 관련된 양육행동을 측정하거나 실제로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해 학대여부가 드러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Maguire-Jack, 2014). Maguire-Jack(2014)은 개인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다층모형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계적 특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를 비교하였는데 여러 요인이 동시에 다차원적으로 투입되었을 때 지역사회의 범죄율이 아동학대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다층모형을 통해 지역사회 요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방임 및 학대 수준을 측정하였던 서구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아동이 인식한 방임 및 학대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4.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국내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사회 자료는 주로 시군구를 기준으로 수집 및 분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김세원·김선숙, 2012; 김창익·윤우석, 2013),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자료와 함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통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은 2010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 및 개인을 둘러싼 환경(예: 가정, 또래, 교육, 지역사회)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수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의 2014년도(초등학교 5학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235개 시군구 중에서 아동청소년패널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136개 시군구이며, 이 중 거주 아동의 수가 10명 미만인 시군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86개 시군

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에 결측값이 없는 1,194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 연구변인

(1) 종속변인: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 및 학대 수준

아동청소년패널은 방임과 학대를 각각 네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방임을 측정하는 네 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한 문항을 제외한 세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의 문항이 해당된다. 학대를 측정하는 문항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 몸에 멍이나 상처가 날 정도로 부모님이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와 같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항을 역코딩하여 높은 점수가 높은 수준의 방임 및 학대를 의미하도록 한 후 합산하여 방임과 학대 문항을 산출하였다. 방임과 학대의 신뢰도는 각각 0.76, 0.80이었다. 방임과 학대가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고 최저점에 몰려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변곡점을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2) 독립변인

① 아동 개인 및 가구 수준 특성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 및 학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아동 개인 요인으로 아동의 성별(남자=1)과 정서문제 수준을 고려하였다. 아동청소년패널은 정서문제를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의 다섯 영역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이 영역들은 조봉환·임경희(2003), 김선희·김경연(1998), 김광일·김재환·원호택(1983)이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된 문항을 제외한 후 구성된 것이다. 높은 점수가 높은 수준의 정서문제를 의미하도록 역코딩한 후 합사하였다, 다섯 영역의 신뢰도는 0.79에서 0.86 수준이었다. 분석에서는 다섯 영역을 합산하여 정서문제라는 변인을 산출하였다.

가구 수준 요인으로는 가구주 학력(초대졸 이상=1), 아동이 인식하는 가구소득 수준(잘사는 편=1), 가족구조(양부모가구=1), 형제자매의 수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패널에서 측정하고 있지 않거나 방임 및 학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측정이 불가능한 요인의 영향력을 고려하기 위하여 이전년도 방임 및 학대 수준을 분석에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②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율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는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에 보고된 ‘응급아동학대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최소 2건~최대 543건). 아동학대의심사례수를 지역사회 아동의 수로 나눈 후 1000을 곱하여 아동인구 천명당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율을 산출하였다.

③ 지역사회의 구조적, 관계적, 제도적 특성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1) 기초수급자의 비율, 2) 조이혼율, 3) 외국인 비율, 4) 이동인구(전입+전출)의 비율을 고려하였다. 지역사회 관계적 특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외의 연구에서는 집합적 효능감, 부모-자녀 세대간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리적 혹은 사회적 혼란 등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통계청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지역사회 자료로 본 연구는 ‘사회조사를 통해 측정된 1) 아플 때, 2) 돈이 필요할 때, 3)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각각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고려하였다. 관계적 특성으로 고려된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른 변인과의 상관성이 높은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있는지 여부는 분석에 투입하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제도적 특성은 지역의 규모나 아동인구의 규모와 관계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배치되어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관할지역의 아동수와 관할지역 전체 아동 중 해당 시군구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인구 중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 관련 인프라 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제도적 특성으로 고려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분석절차를 거쳤다. 첫째, 아동 개인 요인, 가구 요인, 지역사회 요인에 대한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과 학대 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1)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고 서열화되는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 종속변인의 특성과 2) 86개 시군구에 1,194명 거주하는 다층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순서 로짓회귀분석(multi-level ordered logit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과 학대 수준이 지역사회의 구조적, 관계적, 제도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층순서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과 학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개

인 및 가구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다층순서로짓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층순서로짓회귀분석과 로짓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한 우도비 검정(likelihood-ratio test) 결과 무선효과(random effect)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로짓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에는 Stata/SE 13.0을 이용하였다.

5. 연구결과

1) 기술통계 결과

아동이 지각한 방임 및 학대 수준이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연구대상인 아동이 지각한 방임 및 학대 수준과 아동 개인 및 가구 특성을 살펴본 기술분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방임 및 학대 수준은 방임과 학대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44.39%와 43.7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분석대상 중 남자 아동이 51.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주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이는 경우가 57.04%이었다. 대부분의 아동이 양부모가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1.15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다. [표 2]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기술통계 결과로, 아동인구 천명당 평균 1.83명이 학대나 방임 의심사례로 신고되었다. 수급자와 외국인은 평균적으로 백명당 각각 2.64명, 2.28명이었다.

[표 1] 방임 및 학대 수준과 아동 개인 및 가구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n=1,194)

변인		빈도 혹은 평균	비율 혹은 표준편차	변인		빈도 혹은 평균	비율 혹은 표준편차
방임 수준	1	530	44.39	정서문제		3.61	2.27
	2	362	30.32	가구주 학력	고졸이하	513	42.96
	3	217	18.17		초대졸이상	681	57.04
	4	85	7.12	가구 소득	보통 이하	490	41.04
학대 수준	1	522	43.72	가족 구조	잘 사는 편	704	58.96
	2	350	29.31		양부모가구 외	61	5.11
	3	190	15.91	양부모가구	1,133	94.89	
	4	132	11.06	형제자매의 수		1.15	0.65
아동 성별	남자	618	51.76	4차년도 방임		4.68	1.67
	여자	576	48.24	4차년도 학대		6.68	2.71

[표 2]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율과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n=86)

		빈도 혹은 평균	비율 혹은 표준편차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율 (아동인구 천명당)		1.83	1.48
구조적 특성	수급자 비율(%)	2.64	1.25
	조이혼율(%)	0.23	0.03
	외국인 비율(%)	2.28	1.82
	이동인구(전입+전출) 비율(%)	29.16	4.11
관계적 특성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 있음(%)	74.85	3.70
	돈 빌릴 수 있는 사람 있음(%)	46.78	2.72
제도적 특성	전체 인구 중 아동인구 비율(%)	21.30	2.90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 아동 중 해당 시군구 아동인구의 비율(%)	35.55	24.95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 전체 아동수(명)	246,510	130,913

2)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율과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 및 학대의 관계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 및 학대 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층순서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임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른 무선효과가 있었으나, 학대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른 무선효과가 없기 때문에 순서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율이 1단위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방임에 대해 1.09(=exp(0.09))점 높게 지각하였으나($p < .10$)¹⁾,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율은 아동이 지각하는 학대 수준과는 관련이 없었다.

1) 개인이 인지한 방임 및 학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기까지는 방임 및 학대에 대한 인지, 신고의 필요성 인식, 신고 절차에 대한 인지, 신고 행위의 실천 등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방임 및 학대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아동청소년패널 참여자)과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피해아동은 동일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한계적으로 유의한(marginally significant) 결과를 해석하였다. 또한, 이후에 소개되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사회조사' 문항의 통계적 영향력을 해석할 때에도 동일한 이유로 한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해석하였다.

[표 3] 지역사회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률과 아동 개인이 보고한 방임 및 학대 수준

(n=1,194)

	방임		학대	
	B ¹	(S.E.) ²	B	(S.E.)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률	0.09	(0.05)+	0.04	(0.04)
/cut1	-0.07	(0.11)	-0.18	(0.09)
/cut2	1.27	(0.11)	1.06	(0.09)
/cut3	2.77	(0.15)	2.15	(0.11)
무선효과				
var(_cons)	0.08	(0.06)	-	
Chi-square	3.77+		1.04	

+ p<.10

1. 비표준화 회귀계수(Unstandardized Coefficient)

2. 표준오차(Standard Error)

3)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 및 학대 수준과 지역사회의 특성의 관계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 및 학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관계적, 제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층순서로짓회귀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방임과 학대 두 모형에서 지역에 따른 무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순서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는데, 학대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특성 중 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지각하는 학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거주하는 지역의 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방임 수준을 높이 지각하였으며(B=0.14, p<.05), 이동인구 비율이 높거나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할 때 지각하는 방임 수준이 낮았다(각각 B=-0.04, p<.05; B=-0.04, p<.05).

[표 4] 지역사회 특성과 아동 개인이 보고한 방임 및 학대 수준

(n=1,194)

	방임		학대	
	B	(S.E.)	B	(S.E.)
수급자 비율(%)	0.14	(0.06)*	0.003	(0.06)
조이혼율(%)	0.03	(2.28)	1.05	(2.28)
외국인 비율(%)	0.01	(0.04)	0.02	(0.04)
이동인구(전입+전출) 비율(%)	-0.04	(0.02)*	-0.01	(0.02)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 있음(%)	-0.04	(0.02)*	-0.01	(0.02)
돈 빌릴 수 있는 사람 있음(%)	-0.001	(0.03)	0.03	(0.03)
전체 인구 중 아동인구 비율(%)	0.02	(0.02)	-0.03	(0.02)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 아동 중 해당 시군구 아동인구의 비율(%)	0.002	(0.03)	0.002	(0.003)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 전체 아동수(명)	0.000	(0.000)	0.000	(0.000)
/cut1	-3.18	(1.31)	0.02	(1.30)
/cut2	-1.85	(1.31)	1.27	(1.30)
/cut3	-0.35	(1.31)	2.36	(1.31)
Chi-square	21.09*		5.79	

* p<.05

4)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 및 학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개인, 가구, 지역사회 요인

아동 개인 및 가구 요인과 지역사회 특성이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 및 학대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층순서로짓회귀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방임과 학대 모형에서 지역에 따른 무선편차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의 모형 1은 개인 및 가구 요인만 투입하여 방임 수준을 측정된 모형이며, 모형 2는 개인 및 가구 요인과 함께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율을 투입한 모형이고, 모형 3은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율 대신에 지역사회의 특성을 투입한 모형이다. 모형 1부터 3까지를 살펴보면, 아동 개인 및 가구 요인은 지역사회 특성의 투입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 1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문제가 높거나(B=0.05, p<.001) 형제자매의 수가 많을 때(B=0.29, p<.01) 방임 수준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가구주의 학력이 초대졸 이상이거나(B=-0.29, p<.05) 잘 사

는 편이라고 인식할 때($B=-0.47, p<.001$) 방임 수준을 낮게 지각하였다.

모형 2는 아동 개인 및 가구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을 수준은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 수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B=1.14, p>.05$). 모형 3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관계적, 제도적 특성 중 [표 4]에서 방임 및 학대 수준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요인을 투입한 결과로, 아동 개인 및 가구 요인이 동일할 때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할 때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 수준이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B=-0.02, p<.10$). 추가적으로 아동 개인 및 가구 요인과 지역사회 특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방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개인, 가구, 지역사회 요인

(n=1,194)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	B	(S.E.)	B	(S.E.)
남자 아동	0.05	(0.11)	0.05	(0.11)	0.04	(0.11)
정서문제	0.12	(0.03)***	0.12	(0.03)***	0.12	(0.03)***
가구주 학력: 초대졸 이상	-0.29	(0.11)*	-0.29	(0.11)*	-0.25	(0.12)*
가구소득: 잘 사는 편	-0.47	(0.11)***	-0.48	(0.11)***	-0.48	(0.11)***
가족구조: 양부모가구	-0.36	(0.24)	-0.35	(0.24)	-0.32	(0.25)
형제자매의 수	0.29	(0.09)**	0.29	(0.09)**	0.28	(0.09)**
전년도 방임 수준	0.41	(0.04)***	0.41	(0.04)***	0.41	(0.04)***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을	-		0.01	(0.04)	-	
수급자 비율(%)	-		-		0.06	(0.05)
이동인구(전입+전출) 비율(%)	-		-		-0.01	(0.02)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 있음(%)	-		-		-0.02	(0.01)+
/cut1	1.65	(0.32)	1.66	(0.32)	-0.21	(1.09)
/cut2	3.21	(0.33)	3.23	(0.33)	1.36	(1.09)
/cut3	4.88	(0.35)	4.90	(0.35)	3.04	(1.10)
LR chi2	266.96***		266.95***		272.90***	

준거집단: 여자 아동, 가구주 학력: 고등학교 이하, 가구 소득: 보통 이하, 가족 구조: 양부모 아님

*** $p<.001$; ** $p<.01$; $p<.05$; + $p<.10$

아동이 지각하는 학대 수준은 [표 3]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의 특성과 관련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아동 개인 및 가구 요인만을 투입해서 분석하였다. [표 6]은 4차년도 학대 수준을 통제 하였을 때 여자 아동에 비해 남자 아동이 학대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B=0.38$, $p<.01$).

[표 6] 학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개인 및 가구 요인

	B	(S.E.)
남자 아동	0.38	(0.11)**
정서문제	0.04	(0.03)
가구주 학력: 초대졸 이상	-0.10	(0.11)
가구소득: 잘 사는 편	-0.11	(0.11)
가족구조: 양부모가구	0.24	(0.27)
형제자매의 수	0.04	(0.09)
전년도 학대 수준	0.35	(0.02)***
/cut1	2.44	(0.33)
/cut2	3.95	(0.35)
/cut3	5.26	(0.36)
LR chi2	294.58***	

준거집단: 여자 아동, 가구주 학력: 고등학교 이하, 가구 소득: 보통 이하, 가족 구조: 양부모 아님

*** $p<.001$; ** $p<.01$

6.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아동의 외체계에 해당하는 지역사회가 아동 방임(neglect) 및 학대(abuse)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패널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의 5차년도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은 방임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율은 아동이 지각하는 학대 수준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방임의 경우에만 지역의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율이 관련성을 보이는 결과는 방

임과 학대의 발생원인의 비교를 통해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학대 발생에 아동 개인의 문제나 양육자의 기질 문제가 작용한다고 간주되는 것과 달리, 방임은 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김현옥, 김경호, 2011), 신체학대 발생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과 같은 부모 요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방임의 발생원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이는 방임의 발생은 학대의 발생에 비해 개인의 미시체계를 넘어서 외체계의 영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은 방임 수준을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단위의 측정과 개인 단위 측정의 간극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아동방임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수준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의 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방임이 전체 학대(maltreatment) 유형의 7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16) 아동학대 발생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이 방임 수준을 높게 인식한다는 연구결과가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학대 유형에서 방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18%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학대 미분류 기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아동학대 발생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이 방임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방임기준의 모호함을 들고자 하는데,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 개입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긴 미국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방임이 전체 학대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에 따라 1.47%에서 95.4%로 큰 차이를 보인다(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16).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도까지는 전체 학대에서 방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신고건수가 많아지면서 방임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방임으로 인한 보호건수는 지난 10년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이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학대로 인식하는 시민의식이 높아졌지만 방임에 대해서는 인식 수준이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방임이 실제 발생에 비해 신고접수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중복학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통해 아동학대 발생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이 방임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 수준은 지역의 특성과 관련이 있었는데, 거주하는 지역의 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방임 수준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이동인구 비율이 높거나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할 때 지각하는 방임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위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특성은 아동이 지각하는 학대 수준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국내에서 진행된 기존의 연구결과는 지역사회의 수급자 비율이 높거나(이봉주·김세원, 2005; 정선영, 2016)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을 때(정선영, 2016) 지역사회의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율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기존의 국내 연구가 방임 및 학대 수준을 지역사회 단위로 측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개인 단위 측정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은 지역사회 단위와 개인 단위 측정의 결과가 적어도 방임에 있어서는 간극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위의 첫 번째 연구결과의 해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동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이 방임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은 인구이동이 잦아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지역은 방임을 비롯한 학대의 위험이 높다는 서구의 연구결과(Freisthler & Maguire-Jack, 2015; Molnar et al., 2016)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서구와는 다른 주택문화(예. 전세, 아파트)에서 기인한 것이라 예측되지만 추후 연구에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이 지각하는 방임 수준은 아동 개인, 가구 요인, 지역사회 요인을 통해 설명되었으나, 학대 수준은 아동 개인 및 가구 요인을 통해서만 설명되었다. 아동이 지각하는 학대 수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관련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는 위에서 제시된 연구결과와 동일하므로 방임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은 정서문제가 높거나 형제자매의 수가 많을 때 방임 수준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가구주의 학력이 초대졸 이상이거나 잘 사는 편이라고 인식할 때 방임 수준을 낮게 지각하였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형제자매의 수가 많으면 양육자가 아동이 필요로 하는 물리적 혹은 정서적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학력 수준이 낮은 가구주는 아동의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위생 및 건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배화옥·강지영, 2015; Jonson-Reid et al., 2003). 또한, 가구의 소득 수준과 방임의 관계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결과이다(배화옥·강지영, 2015; Coohy & Zhang, 2006; Jonson-Reid et al., 2003).

아동 개인 및 가구 요인이 동일하게 통제되었을 때,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은 방임 수준을 낮게 지각하였는데, 이는 고립된 지역사회에서 방임을 포함한 학대의 위험이 높다는 기존 연구(Freisthler & Maguire-Jack, 2015; Molnar et al., 2016)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및 가구 요인을 투입하였을 때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던 서구의 연구결과(Molnar et al., 2003)와는 달리 아동 개인 및 가구 요인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관계적 특성이 유의하게 아동의 방임 수준과 연관성을 보였는

데, 이는 동일한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방임 수준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아동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개입을 넘어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여러 관계적 특성 중에서도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는데 아플 때 가사와 육아를 비롯한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는 것은 긴밀하고 양방향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단순히 알고지내는 정도를 떠나 상부상조할 수 있는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구축이 아동의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임을 보여준다.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서울특별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예로 들고자 하는데, 사업의 유형과 관련없이 ‘이웃만들기’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5). 예를 들어, 마을사업지기는 주민들과의 접촉점을 늘리기 위해 사업의 내용을 떠나 텃밭 가꾸기, 벽화 그리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고 자신이 형성한 관계망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거나 주민간의 관계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동체 지원정책(예: 새마을운동, 사회적기업)이 공공의 권한과 통제력을 더 강화하거나 주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참여주체의 경영자적 행위를 촉진한다는 비판(최조순·강병준·강현철, 2015)을 고려해 볼 때, 주민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침해하지 않는 공동체 구축사업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학대의 경우 전년도 학대수준이 동일할 때 남자아동이 학대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학대를 제외하고는 학대 피해 아동의 성별 차이가 없다는 실태보고(보건복지부·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 2016)와는 반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대에 미치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 및 가구 요인뿐만 아니라 이전의 학대수준을 통제했다는 점에서 학대수준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에 더 가깝다 할 수 있다. 학대 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아동의 성별은 영향력이 없거나(장희선·김기현·김기현, 2016) 부분적인 영향력만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배화옥·강지영,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아동의 지각수준이 아닌 신고접수된 사례들의 재발생에 초점을 맞추거나(장희선 외, 2016) 아동이 지각한 방임수준을 이용하여 재발생을 분석하였다는 점(배화옥·강지영, 2015)에서 직접적인 비교는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학대 수준을 지속시키는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의 방임 및 학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다층모형 분석을 통해 아동 방임 및 학대와 지역사회 영향력을 지역사회 단위에서 분석한 기존의 연구(이봉주·김세원, 2005; 정선영, 2016)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였다. 특히, 아동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상부상조가 가능한 공동체 구축과 같은 지역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의 해석이나 적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본 연구가 분석에서 사용한 아동청소년패널은 아동이 지각한 방임 수준을 4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에 비해 방임을 측정하는 문항의 구성은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이는 국내와 국외에서 방임을 연구하는 연구자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배화옥·강지영, 2015; Jonson-Reid et al., 2010). 둘째, 개인 수준에서 아동 방임 및 학대 수준을 측정한 서구의 연구들은 부모를 대상으로 방임이나 학대에 해당하는 양육행동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한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성인의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편파적인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아동의 경우에도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한 응답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방임 수준의 경우 아동의 정서문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정서문제를 경험하는 아동은 실제 방임에 노출된 수준과 관련없이 방임되었다고 지각하는 수준도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와 아동의 응답일치성과 아동의 지각과 실제 방임 및 학대 노출 수준의 비교를 통해 측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3). 정신과외래환자의 간이정신진단검사. *정신건강연구*, 1(0), 150-168.
- 김광혁, 김정석(2012). 가족빈곤 및 지역사회환경과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발달. *사회과학논총*, 28(1), 45-64.
- 김선희, 김경연(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0, 155-166.
- 김세원, 김선숙. 2012. OECD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아동학대 발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률 비교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6(4), 591-617.
- 김현옥, 김경호(2011). 아동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7, 219-243.
- 박명숙(2002).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서 장애아동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1, 311-327.
- 배화옥, 강지영(2015). 아동방임 재발유형과 관련요인. *보건사회연구*, 35(1), 455-474.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5). 마을, 3년의 변화 그리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연구 보고서. 제2014-03-002호. 서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엄미선, 전동일(2006).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과 사회적지지. *사회복지 리뷰*, 11, 75-108.
- 이봉주, 김세원(2005). 아동학대와 방임의 사회구조적 요인 : 빈곤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9(3), 347-373.
- 이재연, 한지숙(2003).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 *아동학회지*, 24(2), 63-78.
- 정선영(2016).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율과 지역사회 특성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49(4), 1-19.
- 장희정, 김기현, 김경희(2016).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사례의 재학대 특성 연구: 생존분석의 적용. *한국가족복지학*, 54, 225-262.
- 조봉환, 임경희(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최은영(2016). 아동학대, 부모와 교직원의 인식을 진단한다! 육아정책 Brief. 47, 1-4.
- 최조순, 강병준, 강현철(2015). 한국 공동체 정책의 비판적 논의: 통치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9(1), 45-64.
- Belsky, J. (1993). Etiology of child maltreatment: A developmental-ecologic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 413-434

- Ben-Arieh, A. (2010). Public expenditure, locality characteristics, and child outcom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 1778-1786.
- Berger, M. (2005). Income, family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violence towar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9, 107-133.
- Breyer, J. & MacPhee, D. (2015). Community characteristics, conservative ideology, and child abuse rates. *Child Abuse & Neglect*, 41, 126-136.
- Coohey, C. & Zhang, Y. (2006). The role of men in chronic supervisory neglect. *Child Maltreatment*, 11(1), 27-33.
- Coulton, J., Crampton, S., Irwin, M., Spilsbury, C. & Korbin, E. (2007). How neighborhoods influence child maltreat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lternative pathways. *Child abuse & Neglect*, 31(11-12), 1117-1142.
- Diez Roux, V. & Mair, C. (2010). Neighborhoods and health.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86(1).
- Freisthler, B. (2013). Need for and access to supportive services in the child welfare system. *GeoJournal*, 78(3).
- Freisthler, B. & Maguire-Jack, K. (2015). Understanding the interplay between neighborhood structural factors, social processes, and alcohol outlets on child physical abuse. *Child maltreatment*, 20(4), 268-277.
- Freisthler, B. & Maguire-Jack, K. (2015). Understanding the interplay between neighborhood structural factors, social processes, and alcohol outlets on child physical abuse. *Child maltreatment*, 20(4), 268-277.
- Freisthler, B., Merritt, H. & LaScala, A. (2006). Understanding the ecology of child maltreat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Child maltreatment*, 11(3), 263-280.
- Fromm, S. (2004). *The processes that moderate the effect of community structural actors on neighborhood child maltreatment rates*(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Raleigh, NC: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 Garbarino, J., Bradshaw, P. & Kostelny, K. (2005). Neighborhood and community influences on parenting. In T. Luster, & L. Okagaki(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297-318.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Gracia, E. & Musitu, G. (2003). Social isolation from communities and child maltreatment: a cross-cultural comparison. *Child abuse & Neglect*, 27(2), 153-168.
- Guterman, B., Lee, J., Taylor, A. & Rathouz, J. 2009. Parental perceptions of neighborhood processes, stress, personal control, and risk for physical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33(12), 897-906.
- Hawthorne, G. (2008). Perceived social isolation in a community sample: Its prevalence and correlates

- with aspects of peoples' liv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3*, 140-150.
- Jencks, C. & Mayer, E. (1990). The social consequences of growing up in a poor neighborhood. In L. Lynn & M. McGeary(Eds). *Inner city poverty*.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Jones, H. (1996). Editorial: Parental social isolation. *Child Abuse & Neglect*, *20(3)*, 239-240.
- Jonson-Reid, M., Drake, B., Chung, S. & Way, I. (2003). Cross-type recidivism among child maltreatment victims and perpetrators. *Child Abuse & Neglect*, *27(8)*, 899-917.
- Jonson-Reid, M., Emery, R., Drake, B. & Stahlschmidt, J. (2010). Understanding chronically reported families. *Child Maltreatment*, *15(4)*, 271-281.
- Kim, B. & Maguire-Jack, K. (2015). Community interaction and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41*, 146-157.
- Maguire-Jack, K. 2014. The role of prevention service in the county context of child maltreat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43*, 85-95.
- Maguire-Jack, K. & Wang, X. (2016). Pathways from neighborhood to neglect: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tress.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66*, 28-34.
- Molnar, E., Buka, L., Brennan, T., Holton, K. & Earls, F. (2003). A multi_level study of neighborhoods and parent-to-child physical aggression: Results from the Project on Human Development in Chicago Neighborhoods. *Child Maltreatment*, *8(2)*, 84-97.
- Molnar, E., Goerge, M., Gilsanz, P., Hill, A., Subramanian, V., Holton, K., Duncan, T., Beatriz, D. & Beardslee, R. (2016). Neighborhood-level social processes and substantiated cases of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51*, 41-53.
- Pinderhughes, E., Nix, R., Foster, M. & Jones, D. (2007). Parenting in context: Impact of neighborhood poverty, residential stability, public services, social networks, and danger on parental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4)*, 941-953.
- Sampson, J. (2003). Neighborhood-level context and health: Lessons from sociology. In I. Kawachi & L. Berkman(Eds). *Neighborhoods and heal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Seagull, E. (1987). Social support and child maltreatment: A review of the evidence. *Child Abuse & Neglect*, *11*, 41-52.
- Sedlak, J., Mettenburg, J., Basena, M., Petta, I., McPherson, K., Greene, A. & Li, S. (2010). *Fourth 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 (NIS-4): Report to Congres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 Sidebotham, P. & Heron, J. (2006). Child maltreatment in the "children of the nineties": A cohort study of risk factors. *Child Abuse & Neglect*, *30(5)*, 497-522.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6). *Child maltreat-*

ment 2014. Retrived from <http://www.acf.hhs.gov/programs/cb/research-data-technology/statistics-research/child-maltreatment>

Youssef, M., Attia, D. & Kamel, I. (1998). Children experiencing violence I : Parental use of corporal punishment. *Child Abuse & Neglect*, *22(10)*, 959-973.

◀ Abstract ▶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erceived Levels of Neglect and Abuse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Jung, Sun-Young**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ived levels of neglect and abuse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For this, it analyzed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and data collected from the Statistics Korea.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 who resided in the communities with higher report rates of child maltreatment perceived higher levels of neglect. Second, children who resided in the communities with higher rates of welfare recipients, lower residential mobility, or lower rates of those who responded they had someone to ask for help when they were sick tended to perceive higher levels of neglect. Third, while the perceived levels of abuse were explained by the child factors, those of neglect were explained by child, family, and community factor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e interventions on the community level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Key Words: neglect, abuse, community, report rates of child maltreatment

◆ 2017.1.30. 접수 / 2017.3.12. 1차 수정 / 2017.3.20. 게재확정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S1A5A2A01022904)

** Incheon National University